

荀子の心論 연구

연재함

주제분류 중국철학, 선진유학(先秦儒學)

주요어 순자(荀子), 마음(心), 사려(思慮), 성(誠),神明(神明)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순자의 마음에 관한 이론(心論)을 먼저 인식과 주제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思慮를 중심으로 誠·神明 등의 개념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성악설을 주장하는 荀子에게 있어 善에 대한 파악과 실천은 마음(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순자에게 있어 善이란 理에 알맞고 사회질서를 준수하는 것(正理平治)으로, 마음은 이러한 善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순자는 마음이 지닌 微知와 虛壹而靜을 통해 인식의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그 주된 대상은 理·道·義·禮 등으로, 이러한 도덕원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 情·欲을 절제·주재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해나가고자 하였다.

한편 순자에게 있어 思慮는 理性的 認識에 대한 검토와 검증의 의미를 지닌다. 사려에는 마음이 禮에 맞게 사색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소극적 측면과 더불어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自省·反省의 적극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순자는 誠을 통해 자연계와 인간 사회의 공통된 恒常性을 설명하였다. 순자는 마음의 주재기능이 단순히 도덕원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誠에 근거하기에 ‘仁을 지키고 義를 행하려는’ 恒常된 마음인 誠心을 배양할 것을 강조한다.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형체(形)와 더불어 정신(神)을 지니고 있으며, 마음이 정신(神明)의 주재자라고 주장하였다. 이 가운데 明은 주로 理·道·義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사려를 통해 이것을 내면에 확립할 수 있다. 한편 神은 ‘善을 좋아하여 싫증내지 않는’ 마음을 恒常되게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이자 이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정신적 경지를 의미한다. 순자는 장기간에 걸친 積善成德의 수양을 통해 神明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만물의 근원인 하늘의 생성작용(神)과도 일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서론

荀子は 이름이 況으로 荀卿 혹은 孫卿으로 불리며, 戰國시대 말기의 중요 사상가 중의 한 명이다. 순자는 일생 동안 주로 제나라에서 유학하였고, 稷下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세 번이나 직하학궁의 胙酒(祭酒)를 맡았었다.

주지하듯이 맹자와 순자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반된 이해는 그들의 사상이 각기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를 이루었다. 性善을 주장한 맹자와 性惡을 주장한 순자의 분기점은 仁에 대한 공자의 설명에서 그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공자는 안연의 仁에 대한 물음에 답하면서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감(克己復禮) 仁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 仁을 실천함이 나에게서 비롯되지 남에게서 비롯되겠는가!”라고 말하였다.¹⁾ 맹자는 ‘仁을 실천함이 나에게서 비롯된다’(爲仁由己)는 것의 내재적 근거에 주목하였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사람이 사람이 되는 까닭’ 즉 禽獸와 근본적으로 다른 ‘幾希之性’으로 간주하여, 仁義禮智의 道德性, 道德原理를 人性의 구체적인 함의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맹자는 본성의 善함을 긍정하였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도덕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순자는 ‘자기를 이겨 禮로 돌아가야 한다’(克己復禮)는 점을 중시하였다. 순자는 공자의 性과 習에 관한 설명을 계승하여, “오나라·월나라·夷族·貊族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내는 울음소리가 모두 같지만, 성장하면서 습속이 달라지는 것은 教化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²⁾ 순자는 人性을 본능의 차원에서 인간이 선천적·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리적 욕구·심리적 감정·인식 능력 등으로 규정하였다. 순

1) 『論語·顏淵』顏淵問仁。子曰：“克己復禮爲仁。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爲仁由己，而由人乎哉?”

2) 荀子·勸學』干·越·夷·貉之子，生而同聲，長而異俗，教使之然也。(다음부터 『荀子』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편명만을 표시하고자 한다.)

자는 이러한 人性을 방치할 경우 ‘惡’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인위적인 노력에 힘써 人性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化性起僞’의 이론을 강조하였다.

性善을 부정한 순자에게 있어, 도덕과 가치의 실현은 온전히 마음(心)이 담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순자는 맹자처럼 양심·본심·사단지심 등 도덕심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지 않았다. 순자의 철학 속에는 姦心·傾側之心·學心 등 다양한 함의를 지닌 마음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순자는 “무릇 눈이 美人을 좋아하고, 귀가 음악을 좋아하고, 입이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이 이로움을 좋아하고(心好利), 몸이 안락함을 좋아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性·情에서 생기는 것이다”³⁾라고 하였고, “禮는 사람의 마음(人心)을 따름을 근본으로 삼기에 『禮經』에 없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順人心) 모두 禮이다”⁴⁾라고도 하였다. 순자에게 있어 마음은 一身의 이로움(利)을 추구하는 것이자 동시에 禮의 근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순자의 철학 속에서 마음은 多層的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순자가 마음의 기능과 작용에 관해 언급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중심으로 순자의 마음에 관한 이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마음과 善

동양의 전통철학 속에서 마음은 인간의 도덕, 인식, 의지, 감정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개념이다. 순자의 철학 속에서도 마음은 이러한 개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의 性에는 본래 禮義가 없으니, 힘써 배워서 예의가 내면에 갖춰지길 구해야 한다.⁵⁾

3) 性惡』若夫目好色, 耳好聲, 口好味, 心好利, 骨體膏理好愉佚, 是皆生於人之情性者也.

4) 『大略』禮以順人心爲本, 故亡於 禮經』而順人心者, 皆禮也.

물과 불은 氣는 있지만 자라남은 없고, 초목에는 자라남은 있지만
지는 없으며, 금수는 知는 있지만 義가 없고, 사람은 氣도 있고 자라
남도 있고 知도 있고 또한 義도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된
다.⁶⁾

性惡을 주장하는 순자에게 있어, ‘性에는 본래 禮義가 없다’는 것은 하
나의 대전제가 된다. 그리고 순자에게 있어 禮는 ‘도덕의 지극함’, ‘人道
의 지극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순자가 사람은 선천적으
로 도덕과 인도를 실천할 수 있는 내재적 근거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생
각했음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도덕과 人道를 실천할 수 있는 근거
내지 도덕의 원리 자체를 외부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순자는 사람과 그 외의 존재들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義
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사회(群)를 구성하여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는 까닭 역시 義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
한 ‘性에는 본래 禮義가 없다’는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義 역시 사람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순자는 사람이 무엇에 의거하여 禮義를 내재화하고,
그것에 따라 실천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心)이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쟁반에 담긴 물과 같다. 쟁반을 바르게 놓아
움직이지 않게 하면, 물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는 아래에 있게 되
고, 맑고 투명한 것은 위에 있게 되니, 충분히 수염과 눈썹을 비춰보
고 잔주름까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물 위로 미풍이라도 불어와,
더러운 찌꺼기들이 아래에서 움직이고, 맑고 투명한 것이 위에서 혼
들리게 되면 큰 형체의 올바른 모습도 얻을 수 없다. 마음 역시 이
와 같다. 그러므로 마음을 理로 인도하고 맑음(淸)으로 기르며 외부

5) 『性惡』 今人之性, 固無禮義, 故疆學而求有之也.

6) 王制』 水火有氣而無生, 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義, 人有氣有生有知亦且有義,
故最爲天下貴也.

사물이 마음을 기울어지게 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충분히 是非를 판정하고 의심을 풀 수 있다.⁷⁾

윗글에서 순자는 마음을 쟁반에 담긴 물로 비유하였는데, 맑고 고요한 물이나 깨끗한 거울로 마음을 비유하는 것은 이미 순자 이전에 있었던 설명방식이다. 사람의 마음을 쟁반에 담긴 물로 비유한 순자의 설명 속에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물’ 속에는 ‘더러운 찌꺼기’와 ‘맑고 투명한 것’(清明)이 있다. 맑고 투명한 물이 물체를 반영하듯이, 맑고 투명한 마음 역시 충분히 옳고 그름(是非)을 판정하고 의심을 풀 수 있다. 이처럼 물로 비유되는 마음은 감각기관이 지닌 감성적 인식과는 달리, 시비판단을 가능케 하는 이성적 인식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마음속의 ‘더러운 찌꺼기’는 앞에서 언급한 이로움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안일함을 추구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람의 마음에는 이로움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풍에 의해 물이 흔들리면 큰 형체를 지닌 물체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듯이, 마음 역시 흔들리게 되면 올바른 시비판단을 할 수가 없다. 마음이 외부 사물에 의해 동요될 때 잠재되어 있던 이로움과 안일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맑고 투명한 마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자는 ‘마음을 理로 인도하고 맑음으로’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릇 사람은 그가 옳다고 여긴 것을 따르고, 옳지 않다고 여긴 것을 버리지 않음이 없다. 道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道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⁸⁾

7) 『解蔽』 故人心譬如槃水，正錯而勿動，則湛濁在下而清明在上，則足以見鬚眉而察理矣。微風過之，湛濁動乎下，清明亂於上，則不可以得大形之正也。心亦如是矣。故導之以理，養之以清，物莫之傾，則足以定是非，決嫌疑矣。

8) 『正名』 凡人莫不從其所可而去其所不可。知道之莫之若也，而不從道者，無之有也。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좋이라고 말하는 것은 理에 알맞고(正理) 사회질서를 준수하는 것(平治)이다. 惡이라고 말하는 것은 편파적이어서 理에 어긋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것이 善 惡의 구분이다.⁹⁾

순자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단지 是非판단과 의혹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여긴 것을 따르고 옳지 않다고 여긴 것을 버리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마음은 是非를 반영해 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비를 판단하고 그 取舍를 결정하여 옳은 방향으로 나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로 인해 시비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취사의 결정이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순자에게 있어 ‘善’이란 마음이 지향하는 옳은 방향을 의미한다. 순자가 말한 善은 자신의 행위와 의식이 객관적인 도덕원리라고 할 수 있는 理에 합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질서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자의 성악설에 따르면, 理에 어긋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사람이 그 本性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理에 맞도록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은 순자가 말한 ‘偽’에 해당한다. 따라서 善과 惡, 性和 偽의 갈림길에서 자발적으로 善과 偽의 실현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지닌 의지와 작용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3. 認識

1) 感官과 徵知

선진시대 여러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순자 역시 만물은 하늘(天·天地)로부터 생성된다고 생각하였으며¹⁰⁾, 하늘의 생성 작용과 그 결과를 天

9) 『性惡』 凡古今天下之所謂善者, 正理平治也. 所謂惡者, 偏險悖亂也. 是善惡之分也已.
10) 『榮辱』 夫天生蒸民, 有所以取之; 王制』 天地者, 生之始也; 禮義者, 治之始也;

職 또는 天功이라 표현하였다.

天職이 확립되고 天功이 이루어진 뒤에, 인간의 형체(形)가 갖춰지고 정신(神)이 생겨난다. 好惡·喜怒·哀樂이 거기에 깃들여 있으니 이것을 天情이라 한다.¹¹⁾

순자에 따르면 사람은 하늘에 의해 그 形體가 갖추어지고 精神을 지니게 된다. 아울러 인간은 好惡·喜怒·哀樂 등의 감정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순자는 그것을 天情이라 불렀다. 여기서 인간이 다양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性과 더불어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¹²⁾

사람의 性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밝음은 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들을 수 있는 밝음은 귀에서 떠날 수 없다. 눈의 밝음과 귀의 밝음은 배워서 밝을 수가 없다.¹³⁾

사물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性이고, 사물이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사물의 理 때문이다.¹⁴⁾

사람은 눈·귀와 같은 형체 즉 감각기관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러한 감각기관이 지니고 있는 작용 즉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능 역시 선천적인 것이며, 감각과 그 작용은 분리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

君子者, 禮義之始也。 ; 『富國』 ‘天地生之, 聖人成之’, 此之謂也。 ; 『禮論』 天地合而萬物生。

- 11) 天論』 天職既立, 天功既成, 形具而神生. 好惡·喜怒·哀樂臧焉, 夫是之謂天情.
- 12) “性은 저절로 그러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情은 性의 실질적 내용이며, 욕구(欲)는 情의 외부 사물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순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철학 속에서 性과 情, 欲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正名』 性者, 天之就也, 情者, 性之質也, 欲者, 情之應也.)
- 13) 『性惡』 今人之性, 目可以見, 耳可以聽. 夫可以見之明不離目, 可以聽之聰不離耳. 目明而耳聰, 不可學明矣.
- 14) 解蔽』 凡以知, 人之性也 ; 可以知, 物之理也.

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감각기관과 그것이 지닌 기능 때문이고, 사물이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사물 자체의 理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자는 이러한 감각의 기능과 작용을 사람의 性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형태로 대표되는 감각기관이 지닌 인식능력은 주로 보고, 듣는 것과 같은 수동적 의미의 감각적 인식능력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것이다.

귀·눈·코·입·형체는 각기 다른 外物을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으니 이것을 天官이라 한다. 마음은 가슴 속에 있으며 五官을 다스리니 이것을 天君이라 한다.¹⁵⁾

마음에는 微知의 기능이 있다. 微知할 수 있기에, 귀로 인하여 소리를 알 수 있고, 눈으로 인하여 형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微知는 반드시 감각기관(天官)이 그 대상과 접촉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가능하다. 오관이 접촉하여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微知하여도 설명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¹⁶⁾

순자는 귀·눈·코·입·형체 등의 감각기관을 天官이라 하였다. 감각기관은 외부 사물과 직접 접촉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감각이 지닌 고유한 기능을 통해 사물에 대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서로 대체될 수 없다.

한편 순자는 이러한 감각만으로는 참다운 인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마음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회고 검은 것이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눈은 보지를 못하고, 천둥소리·북소리가 옆에서 들린다 하더라도 귀는 듣지를 못하며”¹⁷⁾,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15) 『天論』 耳目鼻口形能, 各有接而不相能也, 夫是之謂天官. 心居中虛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

16) 『正名』 心有微知. 微知, 則緣耳而知聲可也, 緣目而知形可也, 然而微知, 必將待天官之當簿其類, 然後可也. 五官簿之而不知, 心微之而無說, 則人莫不然謂之不知. 이장희는 ‘微知’를 감각기관에 의해 주어지는 경험적 지식을 입증하는 마음의 능력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장희: 「荀子 心性論에 관한 小考」, 『공자학』 제8호.

있다면, 입으로 맛있는 고기를 먹는다 해도 그 맛을 알 수가 없고, 귀로 악기의 연주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이해할 수가 없고, 눈으로 아름다운 비단에 수놓인 무늬를 보아도 그 모양을 알 수 없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고 평평한 대자리 위에 앉아 있어도 그의 몸은 안락함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¹⁸⁾ 이것은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감각이 받아들인 내용이 온전한 인식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각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勢)’에 의해 착각을 일으키기 쉽고, 결국 마음의 올바른 작용을 방해하게 된다.¹⁹⁾ 따라서 순자는 감각을 주재하며,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내용들을 검증·판단할 수 있는 기능(徵知)을 지닌 마음을 天君이라 이름 하였다. 이러한 순자의 주장은, 마음이 감각과 사물을 연결시켜 인식을 성립시키는 필수불가결한 기관이자, 동시에 감각(天官)을 주재하는 주재자(天君)임을 나타내고 있다.

2) 道와 虛壹而靜

경험적·감각적 인식 이외에도, 순자는 마음을 통해 “사람이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원칙”²⁰⁾인 ‘道’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순자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에는 어떠한 도덕원리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道를 인식하여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인식의 대상이 되는 道 역시 天道나 地道와 같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행동의 가장 합당한 표준이라 할 수 있는 道이며, 이것은 義·理와 상통하는 의미를 지닌다.

순자는 마음이 어떻게 도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해 허일이정(虛壹而靜)을 통해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다.²¹⁾ 순자는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17) 解蔽』心不使焉, 則白黑在前而目不見, 雷鼓在側而耳不聞。

18) 正名』心憂恐則口銜芻豢而不知其味, 耳聽鐘鼓而不知其聲, 目視黼黻而不知其狀, 輕緩平簞而體不知其安。

19) 解蔽』冥冥而行者, 見寢石以爲伏虎也, 見植木以爲立人也, 冥冥蔽其明也。醉者越百步之溝, 以爲蹞步之澮也, 俯而出城門, 以爲小之闔也, 酒亂其神也。厭目而視者, 視一以爲兩, 掩耳而聽者, 聽漠漠而以爲啁啾, 勢亂其官也。

20) 儒效』先王之道, 仁之隆也, 比中而行之, 曷謂中? 曰: 禮義是也。道者, 非天之道, 非地之道, 人之所以道也, 君子之所道也。

알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으며(生而有知), 보다 구체적으로 마음이 선천적으로 이러한 인식(知)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心生而有知)고 설명하였다.

순자는 虛와 臧, 壹(一)과 兩, 靜과 動의 대비를 통해 ‘虛壹而靜’의 의미를 밝혔다.²²⁾ 순자에 의하면, 인간은 외부사물과 서로 접촉함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저장하는데, ‘臧’은 이미 축적되었거나 알고 있는 지식(已藏)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마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虛’는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이 장차 받아들일 새로운 지식(將受)을 방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순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사물을 구분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同時兼知)을 ‘異’라고 불렀다. 한편 서로 다른 사물을 동시에 인식할 때, 어떤 한 사물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다른 한 사물에 대한 인식이 방해받지 않는데, 순자는 이러한 기능을 ‘壹’(一)이라고 하였다. 순자는 또한 마음은 활동하지 않는 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잠자면 꿈꿀 수 있고, 깨으를 때에는 제멋대로 상상하며, 부러질 때 생각하여 방법을 찾는’(使之則謀) ‘動’을 가리킨다. 그러나 꿈을 꾸거나 터무니없는 상상을 할지라도, 알 수 있는 인식능력 자체를 방해할 수는 없다. 순자는 그것을 ‘靜’이라고 칭하였다. 아직 道를 파악하지 못하여 올바른 道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虛壹而靜’으로써 道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마

- 21) 『解蔽』曰：虛壹而靜。心未嘗不臧也，然而有所謂虛；心未嘗不兩也，然而有所謂一；心未嘗不動也，然而有所謂靜。人生而有知，知而有志。志也者，臧也，然而有所謂虛，不以所已臧害所將受謂之虛。心生而有知，知而有異，異也者，同時兼知之，同時兼知之，兩也，然而有所謂一，不以夫一害此一謂之壹。心，臥則夢，偷則自行，使之則謀。故心未嘗不動也，然而有所謂靜，不以夢劇亂知謂之靜。未得道而求道者，謂之虛壹而靜。作之，則將須道者之虛則入，將事道者之壹則盡，盡將思道者靜則察。知道察，知道行，體道者也。
- 22) 白奚에 따르면, 虛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已藏)과 ‘새롭게 받아들여려는 지식’(將受)의 통일이며, 마음속이 텅텅 비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壹은 相異한 지식이 서로 어지럽혀 방해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저것에 대한 앎과 이것에 대한 앎의 통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靜은 動과 靜의 통일이며, 動속의 靜을 의미한다. 白奚은 이러한 순자의 생각이 『皇帝四經』, 『管子』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白奚, 『稷下學研究』, 三聯書店, 1998년, 289~291쪽 참조.

음이 道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道를 體得한 즉 道를 內在化한 사람(體道者)이라고 할 수 있다. 순자는 인식을 가능케 하는 知에 대해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知라고 한다. 知가 외부사물과 접촉하여 얻은 것을 智라고 한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能이라고 한다. 能이 외부사물과 접촉하여 얻은 것을 才能(能)이라고 한다.²³⁾

이제 길 위의 보통 사람들에게 仁義를 이해할 수 있는 자질과 仁義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道理를 지닌 仁義를 파악하도록 한다면, 그들도 우임금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²⁴⁾

순자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 즉 知를 지니고 태어나며, 이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외부사물과 접촉하여 智를 얻게 된다.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仁義를 이해하는 것 역시 일종의 智라고 할 수 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을 知라고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을 愚라고 한다.²⁵⁾

여기서 말하는 知는 알 수 있다는 인식기능과 더불어, 옳은 것을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즉, 인식을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판단·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순자는 인

23) 『正名』 所以知之在人者謂之知. 知有所合謂之智. 智所以能之在人者謂之能. 能有所合謂之能.
24) 『性惡』 今使塗之人者以其可以知之質, 可以能之具, 本夫仁義之可知之理, 可能之具, 然則其可以爲禹明矣.
25) 『修身』 是是, 非非謂之知; 非是, 是非謂之愚.

간이 할 수 있는 능력(能)을 지니고 있으며, 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외부 사물과 접촉하여 才能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알 수 있는 능력으로 仁義와 같은 도덕원리를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원리를 실천하여 우임금과 같은 이상적인 인격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순자에게 있어 마음의 인식기능을 대표하는 ‘知’가 반드시 道나 仁義에 관한 이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순자에게 있어 知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마음 역시 다중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추구하니, 이것은 情이 반드시 면할 수 없는 바이고, 바라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실행하게 되니, 이것은 智(知)이 반드시 이와 같이 해 나가는 것이다.²⁶⁾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바라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추구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情이 지닌 불가피한 특성이다. 순자에 따르면,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것은 情·欲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智(知) 내지 인식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인식기능이 언제나 道를 파악할 수 있다거나, 道와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쟁반에 담긴 물과 같은 마음이 외부 사물에 의해 편향되거나, 情·欲과 같은 내면의 원인에 의해 부러질 때 道를 이해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마음은 이와 같은 내적·외적 원인에 의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거나 그릇된 것을 옳은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며, 情·欲의 요구에 따라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26) 『正名』 以所欲爲可得而求之, 情之所必不免也, 以爲可而道之, 知所必出也.

4. 主宰

1) 情과 欲의 주재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같음과 다름을 분별하는가? 그것은 감각기관(天官)에 의해서이다. ... 형체와 색깔과 살결은 눈으로 차이를 구별하고, 소리의 맑음과 탁함, 악기의 가락과 기이한 소리는 귀로 차이를 구별하고, 향기와 꽃향기와 썩은 내와 비린내와 누린내와 노래기 냄새와 악취와 기이한 냄새는 코로 차이를 구별하고, 아프고 가볍고 차고 뜨겁고 매끄럽고 따갑고 가볍고 무거운 것은 형체로 차이를 구별하고, 기꺼워하고 과장하고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것은 마음으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다.²⁷⁾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감각기관은 각기 고유한 기능을 통해 외부사물을 인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마음이 지닌 작용이 더해져 있다. 그리고 인간은 외부사물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꽃향기는 좋아하고 음식물이 썩어가며 풍기는 악취는 싫어하는 감정을 나타낸다. 순자에 의하면 외부사물에 대해 그것에 적합한 감정을 구분하고 표현해 내는 것 역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선천적·보편적으로 다양한 감정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물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표현해 낼 것인지는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욕망은 지나치지만 행동이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것은 마음이 그것을 제지하기 때문이다.(心止之也) 마음이 긍정적인 것이 도리에 맞다면 욕망이 비록 많을지라도 사회의 안정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욕망은 미치지 못하지만 행동이 오히려 지

27) 『正名』然則何緣而以同異? 曰：緣天官。... 形體·色·理以目異，聲音清濁·調竽奇聲以耳異，甘·苦·鹹·淡·辛·酸·奇味以口異，香·臭·芬·鬱·腥·臊·酒·酸·奇臭以鼻異，疾·養·滄·熱·滑·鈹·輕·重以形體異，說·故·喜·怒·哀·樂·愛·惡·欲以心異。

나치는데 이것은 마음이 행동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心使之也) 마음이 긍정적인 것이 道理에서 벗어난다면 욕망이 비록 적을지라도 어찌 사회의 혼란함을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회의 안정과 혼란은 마음이 긍정적인 것에 달려 있지, 情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²⁸⁾

순자에 의하면, 감각기관이 외부사물과 접촉을 통해 일정한 감정을 지니게 되고, 인간은 이러한 감정을 만족시키는 대상을 추구하려는 욕구·욕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욕구는 ‘바라면서 얻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순자는 이와 같은 욕구는 지극히 좋은 것을 즐기기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²⁹⁾ 순자에 따르면, 밥을 먹을 때 인간은 모두 가장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결코 거칠고 보잘 것 없는 음식에 만족할 수 없다. 이것은 性情이 지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속성이자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기도 한다.³⁰⁾ 아울러 순자에 의하면 인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은 동일하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추구하는 반면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 행동하도록 인간을 방치해 둔다면 서로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분투하게 되고 결국 다툼과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순자는 여기에서 욕구·욕망의 多少와 행동의 過不及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을 따른다면, 이것들이 많을 때 행동은 일정한 기준보다 지나치게 되고, 적을 때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윗글에서 순자는 ‘마음이 긍정적인 것’(心之所可)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옳다고 받아들인 일종의 준칙이라

28) 『正名』 欲過之而動不及, 心止之也. 心之所可中理, 則欲雖多, 奚傷於治! 欲不及而動過之, 心使之也. 心之所可失理, 則欲雖寡, 奚止於亂! 故治亂在於心之所可, 亡於情之所欲.

29) 『王霸』 夫人之情, 目欲綦色, 耳欲綦聲, 口欲綦味, 鼻欲綦臭, 心欲綦佚. 此五綦者, 人情之所必不免也.

30) 『榮辱』 人之情, 食欲有芻豢, 衣欲有文繡, 行欲有輿馬, 又欲夫餘財蓄積之富也, 然而窮年累年不知足, 是人之情也.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칙이 일종의 법칙으로서의 道理(義)와 일치한다면 욕망이 많을지라도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여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받아들인 준칙이 理와 배치된다면 욕망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순자에게 있어 사회의 治亂·善惡의 문제는 감정이나 욕구의 많고 적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마음이 긍정적인 준칙이 理와 부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마음과 감정·욕구의 관계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외부사물에 대해 어떤 감정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구분하고 결정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욕구의 다소와 무관하게 그것을 제어하거나 추구할 것을 결정하는 것 역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자의 철학 속에서, 감정에 대한 운용이나 욕구에 대한 조절은 마음과 그것이 긍정적인 理에 의거하여 주재된다고 할 수 있다.

2) 道の 주재

마음은 형체(形)의 주재자이며, 정신(神明)의 주재자로 형체에 대해 명령을 내리지 명령을 받지 않는다. 마음은 스스로 자신을 제약하며 스스로 자신을 부리고 스스로 포기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며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멈춘다. 입은 협박하여 침묵을 하거나 말을 하게 할 수 있고, 형체는 협박하여 굽히거나 뺨게 할 수가 있으나, 마음은 협박하여 뜻을 바꾸게 할 수가 없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받아들이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물리친다.³¹⁾

앞에서 天職과 天功에 의해 인간의 형체와 정신이 갖추어진다고 언급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자는 여기에서 마음이 이러한 형체와

31) 『解蔽』 心者, 形之君也而神明之主也, 出令而無所受命. 自禁也, 自使也, 自奪也, 自取也, 自行也, 自止也. 故口可劫而使墨云, 形可劫而使誑申, 心不可劫而使易意, 是之則受, 非之則辭. 한편 『莊子』에서 이미 ‘神明’으로 인간의 정신·心神을 표현하고 있다. 『莊子·齊物論』 勞神明爲一, 而不知其同也.

정신(神明)의 주재자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순자에 의하면, 모든 행위와 인식의 주체가 되는 마음은 그것이 명령을 내리지 외부의 어떠한 명령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외부의 힘에 의해 마음이 지닌 의지를 바꾸도록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음은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그것에 의거하여 是非를 결정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순자에게 있어 마음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활동의 주재자 즉 행위와 의식을 주재하고 결정하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이란 道の 주재자이다. 道란 다스림의 근본원칙(經理)이다.³²⁾

순자에게 있어 마음은 행위와 의식 활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道’의 주재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道는 “만물을 변화시키고 생성케 하는 근본”으로서의 大道·天道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³³⁾, 사회·국가의 治亂과 관계가 있는 다스림의 근본원칙을 의미하며, 사물을 구분하는 표준으로써의 道를 의미한다.³⁴⁾

순자가 비록 ‘마음이 道の 주재자’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마음이 道 자체라거나 道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순자에 따르면 인간이 보편적·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人性속에는 ‘禮義’와 같은 道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道를 주재한다는 것 역시 마음이 道를 인식하여 ‘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마음이 道가 옳은 것임을 긍정하고 수용하여, 자신의 행위와 사회의 질서를 제어·유지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의거하여 실천해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形神과 道の 주재자로서의 마음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道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 『正名』 心也者, 道之主宰也. 道也者, 治之經理也.

33) 『哀公』 大道者, 所以變化遂成萬物也.

34) 『解蔽』 聖人知心術之患, 見蔽塞之禍, 故無欲無惡, 無始無終, 無近無遠, 無博無淺, 無古無今. 兼陳萬物而中縣衡焉. 是故衆異不得相蔽以亂其倫也. 何爲衡? 曰: 道.

5. 思慮와 誠, 神明

1) 思慮와 反省

순자는 性惡을 주장하며, “인간의 본성은 惡한 것이고, 인간의 善함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³⁵⁾ 그러므로 순자는 악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사악함과 혼란을 극복하고 善의 실현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化性起僞)고 역설하였다. 순자는 僞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性の好·惡·喜·怒·哀·樂을 情이라고 한다. 情의 그러함에 대해 마음이 선택하는 것을 慮라고 한다. 心慮한 뒤에 能(感官의 기능)이 그에 따라 해나가는 것을 僞라고 한다. 思慮가 쌓이고 能이 반복적으로 익힌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僞라고 한다.³⁶⁾

순자에게 있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 어떠한 감정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은 마음의 주재 작용에 속한다. 순자는 마음의 이러한 기능을 ‘慮’(思慮)라고 하였다. 心慮한 뒤에 인간이 지닌 감각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能’이 마음의 판단·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순자는 이것을 ‘僞’라고 하였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려가 축적되고 감각의 기능이 반복을 통해 사려의 판단과 선택에 익숙해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僞’라고 하였다. 이러한 僞가 性과 대비되는 후천적, 경험적, 인위적 의미의 僞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배고프면 배불리 먹으려 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

35) 『性惡』 人之性惡,其善者僞也.

36) 『正名』 性之好·惡·喜·怒·哀·樂謂之情. 情然而心爲之擇謂之慮. 心慮而能爲之動謂之僞. 慮積焉·能習焉而後成謂之僞.

으러 하고, 피곤하면 쉬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性情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데도 어른(長)을 보고서 감히 먼저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은 사양하는 바가 있어서이다. 피곤하지만 감히 쉬고자 하지 않는 것은 대신할 바가 있어서이다. 무릇 자식이 부모에게 사양하고, 동생이 형에게 사양하며,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고, 동생이 형을 대신하니 이 두 가지 행위는 本性에 상반되고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孝子の 道이고 禮義의 條理이다.³⁷⁾

성악설에 따르면, 사람은 父兄이 굶주리던지 피곤하던지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 행위 할 것이다. 그러나 순자는 여기서 부형을 위하여 사양하고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효자의 道를 설명하였는데 이것이 곧 僞이자 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思慮의 축적을 통해 ‘본성에 상반되고 감정에 어긋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僞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性은 禮義를 알지 못하니 思慮하고 禮義를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³⁸⁾

聖인이 思慮를 축적하고 인위적 노력을 익숙하게 익혀 禮義를 제정하고 法度を 건립하니, 그러므로 禮義와 法度は 성인의 僞에서 생기지 본래 사람의 性에서 생기지 않는다.³⁹⁾

순자가 생각했던 人性에는 본래 禮義와 같은 행위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지닌 인식기능을 통해 禮義를 파악해야만 한다. 그런데 순자는 여기서 禮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思慮’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聖인이 예의를 제정함에 있어 聖인 역시 僞 즉 ‘思慮를 축적하고 인위적 노력을 익숙하게 함’에 기초하고 있다. 순자에

37) 性惡』 今人之性，飢而欲飽，寒而欲煖，勞而欲休，此人之情性也。今人飢，見長不敢先食者，將有所讓也。勞而不敢求息者，將有所代也。夫子之讓乎父，弟之讓乎兄；子之代乎父，弟之代乎兄，此二行者，皆反於性而悖於情也。然而孝子之道，禮義之文理也。

38) 性惡』 性不知禮義，故思慮而求知之也。

39) 性惡』 聖人積思慮，習僞故，以生禮義而起法度，然則禮義法度者，是生於聖人之僞，非故生於人之性也。

게 있어 思慮의 축적이란 마음이 긍정하여 수용한 道·理 등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은 그릇된 원리를 옳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사려를 통해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이 지닌 徵知의 기능이 感性的 認識에 대한 검증과 판단이라면, 思慮는 理性的 認識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禮를 따르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깊이 사색할 수 있다면 能慮라 하고, 예를 따르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지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能固라 한다. 能慮하고 能固하며 게다가 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聖人이다.⁴⁰⁾

순자는 禮를 존중하고 인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禮에 맞게 사색하는 것을 ‘能慮’라고 하였다. 이것은 思慮의 소극적인 측면으로, 마음이 思慮를 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志向함이 훌륭하면 부귀를 경시하고, 道義를 중시하면 王公을 가벼이 여기게 되니, 안으로 살핌(內省)을 중시하여 외부사물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다. 『傳』에서 ‘군자는 外物을 부리지만 小人은 外物에 부러진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함이다. 몸이 수고롭지만 마음이 편하다면 그 일을 하고, 이익이 적지만 의로움(義)이 많다면 그 일을 한다. 昏亂한 군주를 섬겨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꾀박받는 小國의 군주를 섬겨 따르게 하는 것만 못하다.⁴¹⁾

순자는 사려가 축적되고 인위적인 노력이 반복되면, 인간의 욕구를 만

40) 禮論』禮之中焉能思索，謂之能慮；禮之中焉能勿易，謂之能固。能慮能固，加好者焉，斯聖人矣。

41) 修身』志意修則驕富貴，道義重則輕王公，內省而外物輕矣。『傳』曰：‘君子役物，小人役於物’，此之謂也。身勞而心安，爲之；利少而義多，爲之。事亂君而通，不如事窮君而順焉。

족시켜줄 수 있는 외부사물(부귀, 높은 지위, 이익 등)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고 마음의 편안함, 義, 군주에 대한 교화 등 가치 있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선택·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순자에게 있어 僞이고 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지조 내지 의지 역시 不變의 단계(能固)를 넘어 道義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된다. 특히 순자는 자신의 내면을 살핀다는 自省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思慮의 축적이 思考·思索된 내용의 저장이나 記憶의 차원을 넘어 ‘反省’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순자가 “군자가 폭넓게 배우고 날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參省)한다면 얕이 밝아지고(明) 행동에 잘못이 없을 것이다”⁴²⁾라고 말한 것 역시 마음이 지닌 反省의 기능을 증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자에게 있어 마음의 활동인 사려 속에는 반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려의 적극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길 기다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을 따른다. 인간의 욕구는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길 기다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은 것이다.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을 따르는 것은 마음에서 받은 것이다. 하늘에서 받은 단순한 욕구는 마음에서 받은 여러 思慮에 의해 제약되기에, 본래 하늘에서 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하기 어렵다.⁴³⁾

비록 문지기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욕구를 모두 버리게 할 수는 없다. 비록 天子라 할지라도 욕구를 다할 수는 없다. 욕구는 비록 다할 수 없지만 다함에 가까울 수 있다. 욕구는 비록 버릴 수 없지만 추구함을 절제할 수 있다. 욕구하는 바를 비록 다할 수 없지만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다함에 가깝고, 욕구를 비록 버릴 수 없지만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면 사려가 추구함을 절제하려고 한다.⁴⁴⁾

42) 『勸學』 君子博學而日參省乎己, 則知明而行無過矣.

43) 『正名』 欲不待可得, 而求者從所可. 欲不待可得, 所受乎天也; 求者從所可, 所受乎心也. 所受乎天之欲, 制於所受乎心之多, 固難類所受乎天也.

순자에 따르면 욕구는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지기와 같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욕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동시에 天子와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욕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 맹자가 寡慾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 節慾을 주장하는 순자에게 있어,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동기와 역량은 모두 마음이 지닌 思慮의 기능에 달려 있다. 천부적인 욕구는 인위적인 사려와 행동 즉 ‘偽’에 의해 절제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욕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오로지 그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사려에 기초하여 반성을 통해 스스로 욕구를 가늠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誠

하늘의 운행에는 항상됨(常)이 있으니 요임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⁴⁵⁾

하늘에는 항상된 道가 있고, 땅에는 항상된 법칙이 있으며, 군자에게는 항상된 규범이 있다. 군자는 그 항상됨을 따르지만, 소인은 눈 앞의 이익만을 따진다.⁴⁶⁾

무릇 道라는 것은 항상됨을 근본으로 하여 변화를 극진히 하는 것이니, 한 모서리로 그것을 포괄하기는 부족하다.⁴⁷⁾

이러한 순자의 주장은 天地로 대표되는 자연계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常道)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군자로 대표되는 인간 사회에도 항상된

44) 『正名』 故雖爲守門, 欲不可去, 性之具也. 雖爲天子, 欲不可盡. 欲雖不可盡, 可以近盡也, 欲雖不可去, 求可節也. 所欲雖不可盡, 求者猶近盡, 欲雖不可去, 所求不得, 慮者欲節求也.

45) 『天論』 天行有常, 不爲堯存, 不爲桀亡.

46) 『天論』 天有常道矣, 地有常數矣, 君子有常體矣. 君子道其常, 而小人計其功.

47) 『解蔽』 夫道者, 體常而盡變, 一隅不足以舉之.

규범(常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자는 한 걸음 나아가 이러한 常道와 常體가 誠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군자가 마음을 기름(養心)에 誠보다 좋은 것이 없다. 誠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다. 오로지 仁을 지키고, 義를 행할 따름이다. 誠心으로 仁을 지키면 행위를 통해 仁이 드러나고(形), 드러나면 신묘하고(神), 신묘해지면 다른 사람을 感化할 수 있다. 誠心으로 義를 행하면 理를 알게 되고, 理를 알게 되면 밝아질(明) 수 있으니, 밝아지면 다른 사람을 變化시킬 수 있다. 개선과 감화가 번갈아 일어나니 이것을 天德이라 부른다.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하늘의 높음을 추앙하고, 땅은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땅의 두터움을 추앙하며, 사계절은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 변화의 시기를 알고 있으니, 무릇 이것은 모두 항상됨(常)이 있어 誠에 이르는 것이다. 군자는 지극한 德을 지녔기에 비록 아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두 깨우치며, 군자는 아무 것도 베풀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친근하게 여기며, 노여워하지 않아도 위엄이 있다. 이것은 命에 따라 그 홀로 있음에 삼가기 때문이다. 道를 잘 행하는 사람이 誠하지 않으면 홀로 있음에 삼갈 수 없고, 홀로 있음에 삼갈 수 없으면 仁을 드러낼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다면 비록 마음에서 작정하여 얼굴에 나타내고 말로 표현할지라도 백성들은 여전히 그를 따를 수 없을 것이며, 따를지라도 반드시 의심할 것이다. 하늘과 땅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誠하지 않다면 만물을 化育할 수 없고, 聖人は 지혜롭다고 할 수 있지만, 誠하지 않다면 萬民을 教化할 수 없다. 아버지와 자식은 친해야 하지만 誠하지 않다면 소원해지고, 군주는 존귀해야 하지만 誠하지 않는다면 천시 당하게 된다. 誠이란 군자가 지켜야 할 바이며, 정사의 근본이다. 오로지 誠이 있는 곳에 그 同類가 이르니, 誠을 지키면 얻지만 誠을 버리면 잃게 된다. 誠을 지켜서 얻으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愼獨을 행할 수 있으니 愼獨을 행하여 誠을 버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誠을 기를 수 있다. 誠을 길러 재능을 다하도록 하고 오래도록 옮겨가서 그 본래적인 性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함이 教化이다.⁴⁸⁾

48) 『不苟』 君子養心莫善於誠，致誠則無它事矣，唯仁之爲守，唯義之爲行。誠心守仁則形，形則神，神則能化矣；誠心行義則理，理則明，明則能變矣。變化代興，謂之天德。天不言而人推其高焉，地不言而人推其厚焉，四時不言而百姓期焉，夫此有常，以至此

순자는 윗글에서 자연계와 인간 사회의 법칙이 모두 지니고 있는 恒常性을 통해 誠을 설명하고 있다. 순자에 따르면, 天地는 誠하지 않으면 만물을 낳아 기를 수 없으며, 聖人은 誠하지 않으면 萬民을 교화할 수 없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음이 義이고 禮이지만, 誠함이 없다면 결국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군주가 名分과 義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誠함이 없다면 同類인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이것은 誠이 天地의 生成, 聖人の 教化, 義·理 등의 도덕원리, 사회의 치란에 있어 관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仁을 지키고 義를 실천함이 인간의 恒常된 규범이라면, 그 바탕에는 誠心이 전제되어야 한다. 誠하지 않다면 진실로 仁義를 표현할 수 없고, 억지로 표현해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의식을 주재하는 마음의 주재기능은 단순히 禮義·道·理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넘어 誠에 근거하기에 誠으로 마음을 길러야 한다. 아울러 ‘재능을 다하도록 하고 오래도록 옮겨가서 그 본래적인 性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함’은 聖人の 教化이자 동시에 化性起僞로, 이 역시 誠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仁을 지키고 義를 행하려는’ 恒常된 마음을 誠心이라 한다면,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正理平治 즉 善을 실현하려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3) 神과 明

순자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형체와 더불어 정신(神)을 지니고 있으며, 마음이 이러한 정신(神明)의 주재자라고 설명하였다. 앞에서 이미 誠心으로 仁을 지켜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신묘함(神)이고, 誠心으로 義를

誠者也。君子至德，嘿然而喻，未施而親，不怒而威。夫此順命，以慎其獨者也。善之爲道者，不誠則不獨，不獨則不形，不形則雖作於心，見於色，出於言，民猶若未從也，雖從必疑。天地爲大矣，不誠則不能化萬物，聖人爲知矣，不誠則不能化萬民；父子爲親矣，不誠則疏；君上爲尊矣，不誠則卑。夫誠者，君子之所守也，而政事之本也。唯所居以其類至，操之則得之，舍之則失之。操而得之則輕，輕則獨行，獨行而不舍則濟矣。濟而材盡，長遷而不反其初則化矣。

실천하여 理를 알게 되는 것이 밝음(明)이라고 언급했듯이, 순자에게 있어 神·神明은 인식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인식의 단계를 넘어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 내지 일종의 정신적 경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정함은 밝음(明)을 낳고 편벽됨은 우매함을 낳는다. 바르고 성실함은 형통함을 낳고, 속임은 막힘을 낳는다. 정성되고 믿음이 있음은 신묘함(神)을 낳고 과장하여 믿을 수 없음은 미혹됨을 낳는다. 이 여섯 가지 낳음은 군자가 신중히 해야 하니, 우임금과 겺이 구분되는 까닭이다.⁴⁹⁾

순자에 따르면 공정함(公)은 明과, 정성되고 믿음이 있음(誠信)은 神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公과 誠信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공평함과 仁義를 지향하고 추구하려는 恒常性은 正理平治를 이루려는 의지와 합치한다. 동일한 본성을 지닌 우임금과 겺이 각기 聖君과 暴君으로 구분되는 근본적인 이유 역시 公과 誠信을 지향하는 마음을 통해 神·明을 배양하여 발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려함(思)이 세심하면 의지의 밝음이 드러나니, 이것을 좋아하고 한결 같이하면 神妙함을 이룬다. 세심함과 신묘함이 함께 하며 일치하여 나뉘지 않는다면 聖人이 될 것이다.⁵⁰⁾

순자가 말한 신묘함과 밝음(神明) 가운데 明은 인식의 영역 즉 義·理·道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앞에서 ‘理를 알면 밝아질(明) 수 있고’, ‘공정함(公)은 밝음(明)을 낳는다’는 순자의 말 속에서 밝음(明)은 공정함 등을 포함하는 도덕의 원리(理)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및 그

49) 『不苟』 公生明, 偏生闇, 端慤生通, 詐僞生塞, 誠信生神, 夸誕生惑. 此六生者, 君子慎之, 而禹·桀所以分也.

50) 『成相』 思乃精, 志之榮, 好而壹之神以成. 精神相及, 一而不貳爲聖人.

것의 내재화와 관계가 있다. 순자가 “불분명하게 道를 이해한 사람은 밖에서 빛을 드러내지만, 분명하게 道를 이해한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빛을 드러낸다”⁵¹⁾고 말한 것도 義·理·道 등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넘어, 이러한 原理들이 부단한 思慮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思’로 대표되는 인간의 생각은 주로 反省의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 내지 반성이 심화될수록 의지가 굳건해지고, 誠에 기초하여 전일하게 지속되면 신묘함(神)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氣를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禮를 따르는 것 만한 것이 없으며, 훌륭한 스승을 얻는 것 만한 것이 없으며, 좋아하는 바가 한결같이 더욱 신묘하게(神) 되는 것 만한 것이 없다.⁵²⁾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風雨가 일어난다. 물을 모아 연못을 이루면 蛟龍이 생겨난다. 善을 쌓고 德을 이루면 신묘함과 밝음(神明)을 스스로 얻어 성인(聖心)을 갖추게 된다.⁵³⁾

순자가 ‘좋아하는 바가 한결같이 더욱 신묘하게(神)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善을 보았으면 조리 있게 반드시 스스로 보존하고, 不善함을 보았다면 근신하여 반드시 스스로 반성하며 … 善을 좋아하여 싫증내지 않는” 마음을 한결 같이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⁵⁴⁾ 아울러 ‘신묘함과 밝음(神明)을 스스로 얻는다’는 것 역시 인식·반성과 관련된 神明의 기능이 부단히 善을 실천하고 도덕원리를 내재화하는(積善成德) 장기간에 걸친 수양을 통해 聖人의 마음(聖心) 즉 理想的인 人格體가 지닌 정신적 경지로 전환되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51) 『解蔽』 故濁明外景, 清明內景.

52) 『修身』 凡治氣養心之術, 莫徑由禮, 莫要得師, 莫神一好.

53) 『勸學』 積土成山, 風雨興焉; 積水成淵, 蛟龍生焉; 積善成德, 而神明自得, 聖心備焉.

54) 『修身』 見善, 修然必以自存也; 見不善, 愀然必以自省也 … 好善無厭, 受諫而能誠, 雖欲無進, 得乎哉!

뭇별들이 서로 따라 선회하고, 해와 달이 번갈아 비추며, 사계절이 돌아가며 節氣를 조절하고, 陰陽二氣가 만물을 낳아 기르며(大化) 바람과 비가 두루 베풀어진다. 만물은 각기 음양의 조화를 얻어 생겨났으며, 각기 비와 바람의 滋養을 얻어 성장한다. 만물을 生育함을 볼 수 없지만 그 결과(만물)는 볼 수 있으니 이것을 신묘함(神)이라고 한다.⁵⁵⁾

순자는 신묘함(神)을 또한 만물의 생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순자에 따르면 하늘이 만물을 生育해 내는 과정 자체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지만, 만물을 통해 생성의 근원인 하늘과 그것의 생성작용(神)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볼 때, 積善成德을 통해 스스로 神明을 얻은 理想的인 인간의 마음과 만물의 근원인 하늘은 ‘神’을 통해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일의 가능성은 善을 지향하며 그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6. 結論

先秦時代 여러 철학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저평가된 철학자로 순자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후배 학자들의 반감은, 불행하게도 순자의 철학 전체에 대한 경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맹자를 도덕과 가치의 차원에서 人性을 이해한 理想主義者라고 말할 수 있다면, 순자는 실제적 情感과 慾望의 차원에서 人性을 이해한 現實主義者라고 말할 수 있다. 순자는 맹자에 대해 “지금 맹자는 ‘인간의性是 善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과 서로 들어맞는 증거나 증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앞서서 말하였지만 일어서면 실천할 수 없으며, 미루어

55) 『天論』 列星隨旋, 日月遞照, 四時代御, 陰陽大化, 風雨博施, 萬物各得其所, 各得其養以成. 不見其事而見其功, 夫是之謂神.

넓혀가도 실행할 수 없으니 어찌 잘못됨이 심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하였다.⁵⁶⁾ 이러한 점으로부터 순자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과 실증적인 태도를 중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마음과 인식의 관계에 있어, 마음은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주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자의 마음을 오로지 理·義·道 등 도덕원리에 대한 인식에 국한시켜 ‘認識心’으로 이해하려는 설명방식은 순자의 心論에 대한 적합한 이해라고 하기 어렵다. 순자의 마음을 단지 認識心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순자가 말한 한 쪽의 이론에 가려져 바른 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순자에게 있어 도덕원리에 대한 인식의 강조는 성악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선천적인 문제(性惡)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순자의 주장은 마음이 지닌 기능과 작용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순자는 마음의 인식을 통해 도덕원리를 파악하고 내재화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잘못된 원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순자는 思慮가 지닌 반성의 기능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준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며, 이를 통해 내면에 도덕원리를 굳건하게 확립하고 도덕원리에 반하는 성향을 지닌 선천적인 감정과 욕구들을 절제해 나가고자 하였다.

아울러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의식을 이끌어 나가는 마음의 주재기능은 단순히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誠에 기초하고 있기에, 순자는 誠을 통해 마음을 길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의 誠에 대한 강조는 외부사물과 내부의 감정·욕구 등의 교란을 극복하고, 善을 향한 마음의 恒常性を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자는 惡으로 흐를 수 있는 性を 극복하고, 善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神明을 중시하였다. 神明은 인간이 선천

56) 『性惡』今孟子曰‘人之性善’，無辨合符驗，坐而言之，起而不可設，張而不可施行，豈不過甚矣哉!

철학탐구 제32집

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정신적 경지로 상승되기 위해서는 옳을
 향한 부단한 반성, 숙고, 專一함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건국대학교)

참고문헌

- 王先謙 撰, 『荀子集解』(上下), 中華書局, 1992년.
北京大學 『荀子 注解組』, 『荀子新注』, 中華書局, 1979년.
蔣南華 等注釋, 『荀子全譯』, 貴州人民出版社, 1995년.
張覺, 『荀子譯註』, 上海古籍出版社, 1996년.
王忠林 註譯, 『新譯荀子讀本』, 三民書局, 1985년.
蔡仁厚, 『孔孟荀哲學』, 學生書局, 1988년.
白奚, 『稷下學研究』, 三聯書店, 1998년.
김학주 옮김, 『순자』, 을유문화사, 2002년.
이운구 옮김, 『순자 (1,2)』, 한길사, 2006년.
성태용, 「荀子の 人性論」,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제15집』, 1995년.
이장희, 「荀子 心性論에 관한 小考」, 한국공자학회, 『공자학』 제8호, 2001년.
안영석, 「荀子の 心性說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民族文化論叢 제41집』, 2009년.
김광철, 「도덕에 있어서 자율성과 감정의 역할: 순자와 칸트의 비교」, 『철학논집』 제23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년 11월.

荀子の心論 연구

延在欽 (Konkuk Univ.)

這篇論文的目的在於了解荀子哲學中與心有關的一些內容。為此，首先從認識·主宰方面說明荀子所說的心的意義，然後以思慮為中心考察誠·神明和心之間的關係。

在主張性惡說的荀子哲學裏，關於善的問題與‘心’有不可分離的關係。在荀子那裏，‘善’是指‘正理平治’，即具有符合理·道·義等道德原理而遵守社會秩序的意義。

荀子認為作為天君的心能夠接受從感官(天官)得到的內容，而且通過微知的作用而成立認識。荀子用‘虛壹而靜’來說明這種認識的可能性。同時，荀子主張必須經過把握道德原理而主宰人們的情和欲。在荀子那裏，‘思慮’意味對於理性認識的檢討。並且，思慮還包括著消極的和積極的兩個方面。所謂消極的方面是指心了解道德原理而不讓脫離其範圍。積極的方面是指對於自己的思考和行為的反省的意義。

荀子用‘誠’來說明自然界和人類社會都所具有一定的恒常性。荀子所主張的心的主宰功能不只是基於認識道德原理的，而是基於作為恒常性的誠，所以荀子強調了要培養‘守仁行義’的誠心。子又認為人們先天地具有‘形’和‘神’(神明)，而心是形和神的主宰者。其中，‘明’就是能理解理·道·義而與它們有直接關係。而且‘神’是人們都所具有的基本狀態，而是要把‘好善無厭’的心不斷地維持而達成修養的結果。

進而，荀子主張了可以經過‘積善成德’的修養而達到神明的境界，而由此會達到與作為萬物根源的‘天’所起的生成作用(神)一致的境界。

Key words: XunZi(荀子), Mind(心), thoughtfulness(思慮), preside(主宰), sincerity(誠)

荀子の心論 연구 / 연재홍

연재홍 e-mail: dolsoyjh@hanmail.net

투 고 일	2012년 10월 12일
심 사 일	2012년 10월 26일
게재확정	2012년 11월 08일